Digital & IT

휴가철 디지털기기 관리 이렇게

물에 젖으면 배터리부터 빼라

여름 휴가여행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IT기기다. 이 때 값비싼 IT기기가 고장 나거나 분실되면 당황할 때가 많다. 기기별 상황별 대처법을 알아 본다.

◇휴대전화는 AS 적극 활용=LG텔레콤은 휴대전화 고장 및 파손 시 직접 고객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 해결해주는 '엔젤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젤서비스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휴대전화를 가져가 AS센터에서 수리하게 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고객을 방문해 전달해준다. 수리기간에는 임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엔젤 전용 상담센터(019-1004)에 신청할 수 있으며, VIP·골드·실버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방문비 5천원이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 청구된다.

SK텔레콤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AS서비스'(1544-0110)를 제공한다. 이는 고객이 고장 난 휴대전화를 SK텔레콤 직영 AS센터나 대리점에 맡기면 총 수리비의 최대 80%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

KT도 고객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분실됐을 때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AS 또는 임대폰을 제공하는 '굿 타임 방문'(016-114)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스 사용은 필수=여름 휴가 때 주로 가는 바닷가나 계곡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디지털 기기를 물에 젖게 하지 않는 것이다. 고가의 디지털 제품을 잘못 다루다 망가뜨리면 휴가를 망치고 돌아올 수 있다.

물에 빠뜨렸을 때는 즉시 배터리·메모리 카드·녹화테이프 등을 분리하고 마른 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한다. 배터리를 분리한 후 바로 AS센터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말리더라도 뜨거운 바람이 아닌 찬바람을 이용해야 한다. 뜨거운 바람에 민감한 부품이 손상될 수 있다. 케이스를 씌우면 습기도 막을 수 있고 실수로 기기를 떨어뜨렸을 때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SK텔레콤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이 물에 젖은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있다. 피서지에서 휴대전화가 물에 젖을 경우 배터리를 빼고 헤어드라이기의 찬 바람을 이용해 말리는 게 좋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휴가지 AS센터 전화 번호 미리 챙겨야
차량 내부에 기기보관 땐 폭발 할 수도

◇한여름 차량 내부는 '100도'=뿐만 아니라 낮의 온도가 34도 이상을 기록하는 한여름에는 강한 열을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열에 버틸 수 있는 한도는 50~60도 정도. 하지만 한 여름 차 안의 온도는 100도까지 오른다. 그만큼 고장이나 폭발 위험이 크다. 특히 비정품 배터리의 경우 그 가능성이 커진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온도에 민감한 LCD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등은 열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개인휴대단말기(PDA)와 PMP는 차량용 제품에 비해 다소 열에 약한 편이다. 자동차의 에어컨을 켜서 실내온도를 낮춘 후 사용하면 기기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막아준다.

광주 금호월드 관계자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제조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애프터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가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감전위험' 전기모기채 판매 중지

지경부 122품목 안전조사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모기채 등 일부 여름철 전기용품이 판매 중지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 선풍기 등 여름철 전기용품 14개 품목 122개 제품을 안전 조사한 결과, 사고 위험성이 있는 전기모기채와 선풍기, 전격살충기, 전기소독기, 누전차단기 등 5개 제품에 개선명령 및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기모기채의 경우 시험된 11개 제품 중 220볼트 전압을 사용하는 가도유통의 제품 1개가 판매중지 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기모기채는 테니스채 형태 구조의 특성상 충전부가 개방돼 있고 전압 소멸에 최대 13초가 걸려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전지를 사용하는 나머지 제품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일산업의 중국산 선풍기는 약간의 기울임에도 쉽게 넘어져 개선조치를 내렸고, 태우전자의 전격살충기와 ㈜화인의 전기소독기는 감전 위험이 있어 판매를 중지했다.

일본 후지 일렉트릭의 누전차단기 역시 과전류 시험시 정상 작동되지 않아 판매를 중지했다. /연합뉴스

"가장 일하고 싶은 곳 삼성전자"

대학생 4,400명 조사
포스코·유한킴벌리 順

삼성전자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의 직장인과 대학교 4학년 이상 취업 예정자 4천4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한국 기업'을 면접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제조업 분야의 1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2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포스코가 차지했고, 이어 유한킴벌리, SK에너지, LG전자,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STX조선해양, GS칼텍스, 삼성SDI가 차례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어 대한항공, KB국민은행, 아시아나항공, 삼성물산, KT, 삼성에버랜드, 포스코건설, 삼성생명, 삼성SDS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이뤄진 이 조사에서 순위는 비전, 인재관리, 기업문화 및 전반적 매력도 등 4개 분야의 인재유인지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연합뉴스

中企 113곳 구조조정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여신 규모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해 13.1%인 113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6천억 원이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2천80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골프장 음식물 반입 가능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용객이 음식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 골프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며 작년 9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는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간 예약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늘집 매출 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